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교전직전까지 치달아올랐던 최극단의 정세상황속에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취한 혁명적조치들과 그 집행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들을 분석총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철통같이 다져나가기 위한 중대한 전략적과업들이 토의되었다.

확대회의에서는 또한 라선시 큰물피해복구대책문제를 토의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 일부 위원들을 해임 및 임명하였으며 조직문제가 취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확대회의에서 이번 위기사태의 전말을 상세히 통보하시면서 전시상태가 선포된 전선부대들의 군사작전준비과정과 준전시선포지역안의 각 부문 사업정형, 북남고위급진급접촉정형에 대하여 분석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번에 조성되었던 일촉즉발의 긴박한 정세속에서 우리 당은 전국, 전민, 전군을 이끌며 정확한 자기의 령도력을 발휘했으며 정세의 난항을 헤칠 단호한 결심들과 전략적 방침들을 제시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하늘과 땅, 바다의 조국보위초소에 서있는 영웅한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드림없는 조국사수와 혁명보위정신,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에 의하여,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최대의 애



국유산인 사회주의의 우리 조국을 목숨바쳐 사수하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끝까지 지켜내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 뜨거운 조국애에 의하여 우리 조국앞에 닥쳐왔던 위기가 우리의 발밑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위험천만한 사태는 평정되었다고 하시면서 전쟁이라는 재난의 난파도앞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여준 사랑하는 인민들과 전군의 영웅한 장병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혁명을 보위하여 천만이 총폭탄이 되어 나서고 전선과 후방,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조국수호전에 과감하게 떨쳐나선 이런 전국가적, 전인민적단결의 위력은 일찌기 류레가 없는것이였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누구의 지원도, 동정도 없는 력사의 돌풍속에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 혁명의 전취물과 인

민의 행복을 지켜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번 사태를 평정하면서 우리들스스로가 우리의 진정한 힘을 더 잘 알고 더 굳게 믿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진정한 힘, 강대한 힘의 위력은 위험한 침략을 막아내고 그로부터 발생될수 있는 참혹한 전쟁을 막아내는데 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번에 우리는 주동적으로 북남고위급진급접촉을 열고 무력충돌로 치닫던 일촉즉발의 위기를 타개함으로써 민족의 머리우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장구름을 밀어내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북남고위급진급접촉에서 공동보도문이 발표된 것은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운 중대한 전환적계기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번 접촉결과를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숭고한 리념의 승리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운명적인 시각에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꾸어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근본리익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으며 그에 저촉되는 대화나 평화적분위기는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벼랑끝까지 닿은 교전직전에서 다시 되찾은 평온은 결코 회담탁우에서 얻은것이 아니라 위대한 우리 당이 키워온 자위적핵억제력을 증추로 하는 무진막강한 군력과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무적의 천만대오가 있기에 이룩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세월의 강풍속에서 더욱 굳세어진 선군의 총대와 군민의 일심단결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근본담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는 앞으로도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추호의 동요없이 국가방위를 위한 군사력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 전략적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확대회의에서 다음으로 최근에 발생한 라선시의 큰물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통보하시면서 인민군대가 라선시피해복구사업을 전적으로 맡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완전히 끝낼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고 라선시피해복구전투지휘사령부를 조직하시였다.

본사기자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일으켜

북남고위급긴급접촉 진행

내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22일 판문점에서 열린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이 24일에 끝났다.

접촉에는 북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황병서 조선인민군 차수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김양진 당중앙위원회 비서, 남측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참가하였다.

북과 남은 접촉에서 군사적대결과 충돌을 막고 관계발전을 도모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공동보도문은 다음과 같다.

북남고위급긴급접촉

공동보도문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이 2015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접촉에는 북측에서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양진 당중앙위원회 비서, 남측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참가하였다.

쌍방은 접촉에서 최근 북남사이에 고조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북과 남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평양 또는 서울에서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나가기로 하였다.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군인들이 부상을 당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산생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모든 확성기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한다.

4. 북측은 동시에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5. 북과 남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흘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을 9월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6. 북과 남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2015년 8월 24일 판문점

북과 남은 고위급긴급접촉의 성과에 토대하여 관계개선과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김양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기자의 질문에 대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김양진 당중앙위원회 비서는 최근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이 진행된 것과 관련하여 2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북과 남은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고위급 긴급접촉을 가지고 최근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수습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을 폭넓게 협의한데 기초하여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공동보도문에는 북과 남사이의 무력충돌을 막고 긴장을 완화하며 북남관계발전을 도모해나가기 위한 쌍방의 의사와 립장이 반영되어있다.

이번 접촉을 통해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전체를 동란의 소용돌이속에 몰아넣을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험이 해소되고 북남사이의 평화와 안정, 화해와 협력을 위한 극적전환의 계기가 마련된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북과 남이 위험천만한 위기상황에서 서로 마주앉아 사태의 엄중성에 대해 공감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공동의 과제에 합의를 이룩함으로써 북남관계에서 화를 북으로 전환시킬수 있는 획기적극면을 열어놓은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지금 북과 남이 예측할수 없는 충돌로 치닫던 험악한 사태를 막고 화해의 손을 잡은데 대해 내외가 한결같이 환영하고있다.

북과 남은 이번 접촉에서 이룩된 합의정신을 귀중히 여기고 극단적인 위기를 극복한데 그칠것이 아니라 북남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진시켜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접촉이 위급한 불을 끄기 위한것으로만 되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북과 남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서로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대담하게 관계개선길에 들어서야 한다.

공동보도문에서 합의한것처럼 북과 남은 당국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발전시켜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나가기로 하였다.

그러자면 북과 남이 어렵게 마련하여 화해의 길로 돌려세운 현정세호를 잘 유지하고 관리해나가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처럼 북과 남이 원인을 사건으로 요동치는 사태에 말려들어 정세를 악화시키고 극단으로 몰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실 북과 남은 애당초 이번과 같

은 비정상적인 사태에 말려들지 말아야 하였다.

쌍방은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찾고 북남사이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수록 리성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더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민족의 장래부터 생각하고 멀리 앞을 내다보면서 관계개선과 통일의 길로 손잡고나가기로 하였다.

북남관계의 급속한 발전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이 존재할수 있으며 우리는 그에 대해 각성있게 대 하여야 한다.

그러한 견지에서 북과 남은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특별한 주목을 돌려야 하며 우리민족끼리념을 견결히 고수해나가기로 하였다.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일으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의 립장은 일관하다.

우리는 이번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의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사설

고위급긴급접촉의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일으켜나가자

북과 남은 지난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고위급긴급접촉을 가지고 최근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수습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을 폭넓게 협의한데 기초하여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공동보도문에는 북과 남사이의 무력충돌을 막고 긴장을 완화하며 북남관계발전을 도모해나가기 위한 쌍방의 의사와 립장이 반영되어있다.

지금 우리 겨레만이 아닌 전세계가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전체를 동란의 소용돌이속에 몰아넣을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험이 해소되고 북남관계에서 화를 북으로 전환시킬수 있는 획기적극면이 마련되게 되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하면서 환영해마지 않고있다.

교전직전까지 치달아올랐던 최극단의 정세상황속에서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이 진행되고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어 북남관계개선의 극적전환의 계기가 마련된것은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결과 충돌을 막고 긴장을 완화하며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지향과 의지의 발현이었다.

우리 천만군민의 강렬한 의지와 원칙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남조선당국이 《지뢰폭발》사건과 《포격발사》사건을 걸고 반공화국대결소동을 극대화하는 길로 나가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불과불이 오갈수 있는 일촉즉발의 첨예한 긴장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조성된 위험천만한 정세에 대처하여 긴급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는 조선인민군전선대련합부대들이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선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이 하달되었다.

세계의 이목이 조선반도에 모아지고 민족의 머리우에 전쟁의 먹장구름이 무겁게 드리웠던 그때 공화국은 주동적으로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결과 충돌을 막고 긴장을 완화하며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지향과 의지의 발현이었다.

북과 남은 접촉에서 최근 고조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였으며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북남고위급긴급접촉결과는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숭고한 리념의 승리이다.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이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무력충돌로 치닫던 일촉즉발의 위기가 타개되고 북남사이의 평화와 안정, 화해와 협력을 위한 극적전환의 계기가 마련된것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적극 고무해주고있다.

북과 남은 고위급긴급접촉의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이번 고위급접촉을 통하여 일촉즉발의 위기를 해소한데 머물것이 아니라 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해 보다 큰 걸음을 내딛는것이 중요하다.

이번 접촉이 위급한 불을 끄기 위한것으로만 되어서는 큰 의미가 없다.

북과 남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서로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대담하게 관계개선길에 들어서야 한다.

공동보도문에는 북과 남은 당국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발전시켜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나갈데 대해 밝혀져있다.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일으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것은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다.

북과 남은 운명적인 시각에 화를 북으로 전환시킨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꾸어가야 한다.

대결과 불신의 과거를 털어버리고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기로 하였다.

북남관계가 벼랑끝까지 닿은 교전직전에 이르렀던 이번 사태는 원인을 사건을 놓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동을 벌리는 경우 정세만 긴장시키고 있어서는 안 될 군사적충돌을 불러올수밖

에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겼다.

북과 남은 여기에서 응답한 교훈을 찾고 북남사이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수록 리성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북남관계의 급속한 발전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에 대해 각성을 높여야 한다.

지나온 력사는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적계기가 마련되고 이에 대한 민족의 지향과 기대가 높아질수록 동족대결을 부추기는 불순 세력들의 준동은 더욱 우심해졌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엄중한 해독을 끼쳤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멀리 볼것없이 지난해 10월 제17차 아시아경제대회때 우리 총정치국장일행의 전격적인 인천방문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획기적극면이 마련되었을 때에도 군부호전광들과 인 간쓰레기들이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모독증상하는 뼈라를 뿌려대며 발광한것으로 하여 북남관계는 개선된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되게 되었다.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근본리익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으며 그에 저촉되는 대화나 평화적분위는 무의미하다는 것이 공화국의 확고하고도 원칙적인 불변의 립장이다.

대화상대방의 체제를 비방증상하고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벌리며 대결을 추구하여서는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수 없다.

북과 남은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특별한 주목을 돌려야 하며 더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민족의 장래부터 생각하고 멀리 앞을 내다보면서 관계개선과 통일의 길로 손잡고나가기로 하였다.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북과 남이 민족의 대의를 우선시하며 지혜와 힘을 합쳐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반드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게 될것이다.

온 겨레는 이번 고위급긴급접촉의 합의를 귀중히 여기고 그리행에 적극 떨쳐나섬으로써 북남관계발전의 새 전기를 마련해야 할것이다.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자

원칙적이고 성의있는 노력의 결과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을 통해 전쟁의 문어구로 치닫던 험악한 사태가 수습되고 북과 남이 화해의 손을 잡게 된 지금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온 겨레의 희망과 기대는 다시금 부풀어 오르고 있다.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전체를 동란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험이 해소되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극적전환의 계기가 마련된 것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려는 공화국의 원칙적이고 일관한 노력의 결과이다.

공동보도문에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타개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전기를 마련하려는 공화국의 진정어린 립장과 대변하고자 애국애족적인 자세와 의지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

외세에 의해 세기를 이어 지속되고 있는 민족분열과 동족대결의 수치스러운 역사는 북과

남에 다같이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그로 하여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런데 겨레에게 통일의 희망을 안겨주어야 할 북남관계는 오랜 기간 불행하게도 극도의 파국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만 해도 가슴 아픈 일인데 이번처럼 북남관계가 무장충돌과 전쟁의 문어구에까지 가게 되었던 것은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남관계가 이런 험악한 사태에 이른 것을 뵈히 보면서 그것을 해소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 후과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기에 공화국은 이 땅에서 돌이킬 수 없는 군사적충돌과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고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 평화적인 통일을 위하여 주동적으로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온 겨레와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 여

리날에 걸쳐 진행된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의 전 과정은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공화국이 얼마나 애국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접촉을 대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갔는가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하여 무력충돌로 치닫던 일촉즉발의 위기를 타개하고 민족의 머리우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장구름을 밀어내었으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수호하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확고히 서서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고 북남관계의 넓은 앞길을 열어 나가려는 것은 공화국의 변함없는 립장이고 강렬한 의지이다.

공화국은 지난해에도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기 위하여 중대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한 대범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는 뜻깊은 올해에 북남대결상태를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려는 통이 크고 성의있는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였다.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 발표 15돐을 맞으며 행성에 울린 공화국정부성명에도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의 위기를 타개하고 자주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 나가려는 공화국정부의 립장과 의지가 어리여었다.

지금 북남관계는 고위급접촉에서의 극적인 합의로 하여 밝은 전망이 열려져 있다. 이제는 그 귀중한 합의에 토대하여 북남관계를 민족의 지향과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북과 남은 시대의 요구, 온 민족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이번 접촉에서 이룩된 합의정신을 귀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꾸어 가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소중한 합의를 관계개선에로

최근에 있는 북남고위급긴급접촉에서는 전쟁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나라의 긴장한 정세를 완화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여섯가지 합의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던 조선반도의 정세가 극적으로 완화되게 된 것을 놓고 지금 우리 겨레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들도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이번 북남고위급긴급접촉에서 이룩된 합의는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결과 충돌을 막고 긴장을 완화하며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공화국의 원칙적인 투쟁과 성의있는 노력의 결과이다.

불과 며칠전만 하여도 조선반도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과 남의 방대한 무력이 서로 총구를 겨누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었으며 이를 온 세계가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았다. 더우기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미국과 야합한 《울지 프

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는 속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으므로 하여 사소한 충돌도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었다.

이번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을 통하여 남조선당국은 근거없는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사태들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동을 벌리는 경우 정세만 긴장시키고 있어서는 안될 군사적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되었을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북남고위급긴급접촉에서 마련된 소중한 합의를 성실하게 리행하는 것이다.

올해는 조국해방 70돐과 함께 민족분열의 비극의 역사도 70번째 년륜을 새기는 해이다.

이번에 마련된 합의가 그대로 리행된다면 이는 북남관계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비방중상과 전쟁연습으로 인해 북남관계가 악화일로로 치

닫고 조선반도의 정세가 긴장해지는 악순환이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북남고위급긴급접촉에서는 북남당국회담진행, 휴전선 가족, 친척상봉,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활성화와 같은 의미있는 합의들이 이룩되었다.

북과 남은 전쟁일보직전의 상황에서 어렵게 마련된 합의를 잘 살려나가야 한다. 상대방을 자극하고 반대하는 일체 행동을 중지하고 모든것을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으로 지향시키고 북중시켜야 한다.

지난 시기의 대결관념, 적대관념에서 벗어나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우선시하면서 민족공조, 민족단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

북남고위급긴급접촉에서 마련된 합의를 성실하게 리행하여 관계개선의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것, 이것이 지금 북과 남, 해외 온 겨레가 한결같이 바라는 요구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무력충돌을 막고 긴장을 완화하며 북남관계발전을 도모해 나가려는 쌍방의 의사와 립장을 담아 발표한 북남고위급긴급접촉 공동보도문을 화를 북으로 전환시킨 귀중한 합의이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운 중대한 전환적계기로 되는 이번 공동보도문발표를 열렬히 지지찬동하면서 그를 철저히 리행하여 북남관계가 개선의 방향으로 나갈 것을 바라고 있다.

이번 합의를 리행해나가는 데서 북남관계의 급속한 발전을 바라지 않는 불순한 세력들의 준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각성있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지나온 북남관계사가 보여주는 교훈이기도 하다. 지난해 2월 북과 남이 헤어

진 가족친척상봉을 위한 적십자점촉을 진행하고 있을 때 미국이 《B-52》 핵전략폭격기를 조선시해상공에 들이밀어 핵타격연습을 감행함으로써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사실을 우리 겨레는 잊지 않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제 17차 아시아경기대회때 조선인

기의 북침전쟁각본들을 체계화하여 새롭게 만들어낸 《작전계획5015》니 하는것을 언론들에 공개적으로 류포시키면서 대결과 전쟁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은 상대를 극도로 자극함으로써 완화에 나아 가는 현 정세를 악화에로 되돌려세우고 북남합의를 뒤집어엎으려는 세력들이 또다시 준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

합의리행에 제동을 걸고 북남관계개선을 어떻게 하나 가로막으려는 대결세력, 전쟁세력의 책동이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숭고한 리념의 승리로 마련된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관계개선의 넓은 길을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연희

각성있게 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

무력충돌과 전쟁으로 치닫던 조선반도정세가 평화와 안정의 길에 접어들었다. 이것이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은 것은 물론이다. 조선반도사태를 불안속에 주시하던 주변지역나라들과 세인도 지금 안도의 숨을 쉬며 기뻐하고 있다.

알려진것처럼 북과 남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고위급긴급접촉을 가지고 최근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수습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을 폭넓게 협의한데 기초하여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위험천만한 위기상황에서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이 진행되고 민족의 의사가 반영된 공동보도문이 합의되어 화를 북으로 전환시키는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게 된 것은 어떻게 하나 북남사이의 충돌을 막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공화국의 강렬한 의지와 노력이 있어서이다.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

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의 념원과 의지에 맞게 북과 남은 불신과 대결의 력사에 중지를 찍고 관계개선의 넓은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

북과 남이 어렵게 마련하여 화해의 길로 돌려세운 현 정세흐름을 잘 유지하고 관리해나가는 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서 교훈을 찾는 것은 미래를 위해 현명한 일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보아도 알수 있는것처럼 원인모를 사건들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동을 벌리는 경우 정세만 긴장시키고 있어서는 안될 군사적충돌과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

북과 남은 애당초 이번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태에 말려들지 말았어야 하였으나 일은 그 반대로 되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은 매우 크다. 북과 남은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찾고 북남사이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수록 리성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지향에 부응해나서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황진옥



고목에도 꽃을 피우는 은혜로운 사랑

9월 2일은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들이 비전향장기수들이 공화국의 품에 안긴 때로부터 열다섯해가 되는 뜻깊은 날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섰다가 체포되어 남녘의 감옥에서 수십년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진 고문과 전향강요에 시달리며 《떡방인생》, 《숨쉬는 화석》으로 불리우던 비전향장기수들이 감옥에서도 그리던 공화국의 품에 안긴 것은 그들이 말하듯 지옥에서 낙원에로의 인생 전환이었다.

수십년간의 감옥생활로 이어진 세월의 흐름속에 사람들의 기억속에 회미해지고 아무도 모르는 절해고도에서 운명이 꺼져가던 그들을 한시도 잊지 않았고 기어이 조국의 품에 데려오도록 동서고금에도 없는 뜨거운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신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었다.

그이께서는 한생을 수령님과 당을 믿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수십년동안 형언할수 없는 악형과 모진 박해속에서도 혁명적지조를 지켜온 비전향장기수들을 모두 데려와야 한다고, 이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며 그들의 귀환을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피골이 상절한 그들을 위해 멀리 대륙을 에돌아 하늘길을 열어 보내주신 솜꽃가루꽃이며

룩용과 인삼, 사향을 비롯한 귀한 보약재들은 시들고 마른 비전향장기수들의 육체를 안아 일으켜준 자양분, 사랑의 불사약이었다.

이렇듯 크나큰 사랑과 동지적의리에 의해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날에 채택된 6.15공동선언에는 비전향장기수들의 귀환문제가 하나의 조항으로 큼직하게 새겨지게 되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전장이나 역경에서 생사기로에 처한 운명을 구원해준 은인에 대한 이야기가 무수하지만 공화국에서처럼 수십년세월 지옥같

은 사지에서 헤매이는 자기의 아들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구원의 손길로 보살피고 한두사람도 아닌 63명을 한낱한시에 맞아들인것과 같은 례를 알지 못하고있다.

19세기 짜리로씨야가 이전 프랑스왕조에 나뉘레옹시기의 포로들을 데려가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례가 말해주듯이 참다운 조국이 없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말아안아줄 령도자를 모시지 못하면 나라를 위해 싸웠다 해도 관심과 대우느커녕 버림받는 비참한 신세를 면할수 없다는것은 지나온 력사가 보여주는 엄연

한 사실이다.

허나 조국통일을 위해 자신들의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비전향장기수들에게는 은혜로운 조국이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대해같은 덕망에 의해 공화국의 품에 안긴 그들은 지난 15년간 온 나라 인민의 관심과 뜨거운 축복속에 세상에 부럼없는 삶을 누리고 온갖 특전특혜를 다 받아왔다. 한낱한시에 공화국영웅이 되고 조국통일상수상자의 영예를 지니었으며 궁궐같은 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려왔다.

고목에도 꽃을 피우는 사랑

이 있어 인생말년에 잃었던 청춘도 다시 찾고 60청춘, 90환갑을 노래하며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었다. 국가적인 배려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름난 명승지들, 휴양소, 료양소들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글과 그림, 서예작품들도 창작하여 전국적인 축전들에 출품하기도 하였다.

그런 비전향장기수들속에서 작가, 화가, 서예가, 철학박사, 문학박사들이 배출되었다.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사랑과 은정은 오늘 위대한

장군님과 꼭 같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의하여 그대로 베풀어지고있다.

아버이수령님 탄생 100돐경 축하사와 전승 60돐, 62돐 경 축하사들을 비롯한 중요한 국가적행사들에 그들을 불러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함께 찍어주시었으며 은정어린 선물들과 생일상도 거둬 안겨주시었다.

따사로운 조국의 사랑속에 몸과 마음도 더 젊어진 비전향장기수들은 여생을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성업에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철진



조국의 품에 안긴 비전향장기수들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주제 89 (2000)년 9월

승리는 대를 이어

세월이 흐르고 시대는 바뀌어도 변하지 않은것이 조선반도의 지정학적위치이다.

예나 지금이나 불변한 지정학적위치에 대해 말할 때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도 쓰라린 추억이 있다. 반만년의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면서도 외세가 몰아오는 전란에 시달리며 내외의 환의 곡절많은 운명을 감수해야 했던 우리 겨레였다. 19세기말~20세기초 조선반도에서 러진 청일, 로일전쟁과 그 이후 일제의 조선강점의 령장들의 각축전과 당으로 무참히 짓밟히다 못해 비참한 망국노의 설움까지 감수하여야만 했던 조선민족의 피눈물나는 어제였다. 그러나 령도도 인구도 작은 나라가 큰 나라들 사이에 끼여 이것을 피할수 없는 지정학적숙명처럼 여겨온 겨레였다.

땅도 그 땅이고 인민도 그 선조들의 후손이지만 오늘 민족의 존엄과 지위는 어제날과는 하늘과 땅차이로 달라졌다. 민족의 수난사에는 영원히 종지부가 찍혀지고 공화국은 자주적존엄과 국력을 한껏 떨치고있다.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일어난 이 경이적인 사변은 결코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며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안아 오신 력사의 필연이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아버지수령님께서 넘고넘으신 과란만장의 선군령도사를 떠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더없이 추켜 드신 선군의 기치를 떠나 오늘의 민족사적사변을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선군의 총대가 잔인무도한 부정의의 폭력을 제압하고 악을 징벌하는 무한대의 힘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시었다.

지난 세기 90년대 미국은 자주적인 우리 공화국을 어떻게 하나 해치려고 《북조선의 핵무기개발 의혹》 설을 내걸고 《특별사찰

소동을 일으키며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악랄하게 벌리었다. 그 엄혹한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시었으며 려이 공화국은 핵무기전과방비조약탈퇴를 선언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의 기둥을 밀 뿌리채 뒤흔들어놓은 폭탄같은 선언이었다.

원수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총을 내대면 대포를 내대는것은 선군조선의 담대한 기질이며 배짱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무비의 담력과 배짱,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제국주의세력의 횡포무도한 위협과 공갈, 제재와 압력을 이겨내고 공화국을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오르게 하시었다. 우리 민족이 자위의 핵보급을 틀어잡음으로써 조선을 침략하고 전조선반도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야망을 짓부실수 있게 되었으며 어제날 대국들의 통략물이 되어 제 하나의 운명도 지켜내지 못했던 조선이 전략적요충지에 앉아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내는 강한 나라, 강대한 민족이 되었다.

생활에서는 뜻밖의 일이 저절로 생기는것과 같은 우연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서의 일대 전환이나 거창한 사회적진보와 변혁은 우연성과 인연이 없다. 그것은 오직 위대한 령도자를 모실 때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 필연이다. 청소한 공화국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을 타승하고 전승의 기적을 창조할수 있는것도, 《붕괴설》이 어지럽게 나돌던 20세기 90년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행성에 솟구쳐오를수 있는것도 불세출의 위인들이신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최고령수로 모시였

기때문이다.

오늘 공화국은 또 한분의 위인이시며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그 어떤 침략세력의 무분별한 전쟁책동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만만히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과 배짱, 탁월한 령도로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을 최후승리로 이끌어가신다.

일본시사론평가 시이나 가즈오는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지난날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무분별한 핵공갈과 침략위협에 어느 하루도 마음편히 살지 못했던 조선이 오늘은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까지도 핵악몽에 질겁하여 감히 선불질을 못하고 쨍쨍매게 하고있는것은 강력한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소유했기때문이다. 핵보유이전의 조선에 대해서도 감히 군사적공격을 하지 못했던 미국이 당당한 핵보유국이 된 조선에 싸움을 건다는것은 자멸행위나 다름바 없다. 더우기 조선의 최고령도자가 선대수령들의 령명한 군사지략과 담대한 기질을 그대로 계승하고 반미전면대결전을 이끌고있는 조건에서 미국은 그 어떤 군사적모험도 자기 나라를 중국적멸망으로 몰아갈수 있다는것을 각오해야 할것이다.

은 겨레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으시는 절세의 위인이 계시고 선군으로 마련된 막강한 군력, 일심단결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어 세기를 두고 이어지는 적대세력과의 대결은 조선의 승리로 끝나게 될것이며 이 땅우에는 반드시 번영하는 통일강국이 일떠서게 될것이다. 조선의 최후승리는 거스를수 없는 력사의 필연이다.

정선희

민족화해와 단합의 길에서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제도과 거주지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성업을 이룩하는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뜻이고 념원이었다.

아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민족적량심과 애국심을 가진 민족성원이라던 그가 누구이든 손잡고 힘을 합쳐 통일 길을 걷도록 크나큰 믿음과 덕망으로 보살피고 이끌어주시었다.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통일의 대하에 몸담고 애국의 자욱을 남긴 수많은 각계층 민족성원들속에는 전 세계평화련합총재 문선명동포도 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문선명동포가 반공으로부터 려공으로 인생전환을 하여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여생을 바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1991년 12월 문선명동포는 40여년만에 태를 묻고 자란 고향인 평안북도 정주땅을 밟게 되었다. 전쟁의 동란속에 떠났던 옛고향에서 형제, 친척들과 상봉하는 그의 해후는 이름할수 없었다.

수십년세월 항수에 젖은 그의 방문길은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덕망에 의해 성사된것이었다. 조국방문을 고대하는 그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특별비행기

를 띄우도록 하며 속식조건으로부터 체류일정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조치하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보살피심속에 그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됐던것이다.

그가 조국에 체류하고있던 어느날이었다. 문선명동포일행을 반가이 맞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선 집견석상에서 조국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겠다는 그의 결심에 대해 긍정하시면서 조국통일은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립각하여 실현되어야 한다는데 대해 말씀하셨다. 전민족이 조국통일이라는 하나의 목표밑에 사상과 리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결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우리 한사람이 단결하면 그 힘이 한사람의 힘보다 더 클것이고 이렇게 전체 조선민족이 단결하면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라고 강조하시었다.

우리는 과거지사를 묻지 말고 서로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해야 하며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어 부강조국건설이라는 민족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민족단합과 통일변명을 위한 방도적문제를 명백히 밝히신 수령님이시었다.

열화같은 민족애와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시고 민족단합과 통일실현에 지대한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그이의 경륜과 인품에 문선명동포는 매혹을 금치 못했다. 그가 수령님의 은혜에 감사를 거둬 표시하며 기도에서 북과 남이 다 합하여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 되어 주석님을 중심으로 온 민족이 하나되어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문을 외운것은 수령님의 위인상에 매혹된 그의 녀의

발현이었던것이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이제 자주 오라고, 오랜 친구와 같이 생각하고 다시 오라고 하신 수령님은 한없이 고결한 인간미와 인간애를 지니신 성인중의 성인이시었다. 하기에 문선명동포는 아버지수령님께서 뜻밖에서 서거하셨을 때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며 북에서 모든 조문입국을 사절하였지만 사람을 띄워 그분의 령전에 심심한 애도를 표했던것이다.

그는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민족화해와 공동변명을 위한 애국사업에 적극 기여했다. 민족이 힘모아 세계로라는 그의 지론에도 세계평화의 한고리인 조국강토의 평화와 발전, 행복을 기원한 그의 애국심이 담겨져있는것이다.

이런 그가 세해전 9월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선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여 고인의 령전에 조전과 화환을 보내시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보내주시었다. 그리고 평양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의식을 잘 치르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민족을 위한 통일의 길에서 공적을 남긴 그에게 공화국에서는 조국통일상을 수여했다. 민족과 통일을 위해 애국적지성을 다한 문선명동포를 잊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 문선명동포의 사망 1년이 되는 두해전에도 고인의 미망인인 세계평화련합총재 한학자동포에게 따뜻한 추모의 말씀을 보내시었다.

정녕 세기를 이어 베풀어지는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속에 민족과 통일을 위해 바친 문선명동포의 애국의 삶은 오늘도 빛나고있다.

본사기자 리 설

청년 강국으로 위용 떨치는 나라

조선, 그 이름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용이고 세상에 부럼없는 사회주의강성국가, 사회주의문명국가로 나래치는 비약이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조선의 이름이 청년강국이라는 부름으로 더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청년 강국의 전통

거목은 역세인 뿌리가 있어 든든하고 무성하다.

청년강국의 고귀한 부름도 청년중시의 위대한 력사와 전통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청년강국건설의 새 기원, 그것은 위대한 항일무장투쟁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우리 나라의 민족해방투쟁력사를 보아도 앞장에는 언제나 청년들이 서있었다고 하시면서 새 세대의 청년들이 1920년대 중엽부터 민족해방투쟁무대에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항일혁명사의 새 페이지를 열어놓았다는데 대해 회고하시였다.

동서고금의 철학자, 정치가, 교육자들은 레외없이 사회개조와 변혁을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사명을 두고 많은 고견들을 내놓았으나 혁명의 교량자, 후비대에 국한시켰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청년들을 민족의 선봉에서서 운명을 개척하고 전진시키는 투쟁의 선봉대, 주력부대로, 미래의 운명을 걸머진 골간부대로 내세우시고 항일의 기발아래 굳게 묶어세워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뿌리가 된 《E. C》의 조직원들도, 항일대전의 격전장에서 최후의 순간에 《조국여! 나는 그대를 자랑한다.》고 웨친 투사들도 모두가 청년들이였다.

항일의 불길속을 헤친 열혈의 청년들이 간직하였던 백두의 칼바람정신, 단두대의 이슬

청년들에게 백두의 뉘이 깃든 주체의 해불봉을 안겨주시였으며 청년전위라는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1990년대의 김혁, 차광수들이 태어났고 자기를 바쳐 동지들을 구원한 청년영웅들과 수령의 부름, 조국의 부름이라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위훈의 창조자들이 자라났으며 로병들의 자식이 되고 부모없는 아이들의 친부모가 된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들이 배출될수 있었다.

지구상에는 령토나 인구의 크기, 경제나 군사의 위력, 문화의 발전으로 강성을 자랑하는 나라들이 많다.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와 민족도 청년들을 나라와 민족의 기둥으로, 미래의 담당자로 내세우지 못했다.

오직 청년중시의 위대한 력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조선에서만이 청년이란 그 이름이 강국의 대명사로, 영광으로, 자랑으로 빛나고있다. 결코 청년들의 수가 많아서나 그들의 젊음이 백배해서가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신 청년운동의 역세 뿌리는 공화국이 대를 이어 청년강국의 바탕을 곳곳이 이어올수 있게 한 억만년재보로 되었으며 이런 고귀한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공화국은 로쇠를 모르는 청년강국으로 빛을 뿌린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신 청년운동의 역세 뿌리는 공화국이 대를 이어 청년강국의 바탕을 곳곳이 이어올수 있게 한 억만년재보로 되었으며 이런 고귀한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공화국은 로쇠를 모르는 청년강국으로 빛을 뿌린다.

오늘 청년강국의 존엄이 만방에 빛나도록 하시려는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존엄은 누가 가져다주는것이 아니고 절로 생기는것이 아니다. 청년강국의 위상은 출중한 인품과 기백, 천리헤안의 예지와 불길처럼 타오르는 열정을 지니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기상과 령도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젊음에 넘치신 그이의 령도

청년들에게 백두의 뉘이 깃든 주체의 해불봉을 안겨주시였으며 청년전위라는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1990년대의 김혁, 차광수들이 태어났고 자기를 바쳐 동지들을 구원한 청년영웅들과 수령의 부름, 조국의 부름이라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위훈의 창조자들이 자라났으며 로병들의 자식이 되고 부모없는 아이들의 친부모가 된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들이 배출될수 있었다.

지구상에는 령토나 인구의 크기, 경제나 군사의 위력, 문화의 발전으로 강성을 자랑하는 나라들이 많다.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와 민족도 청년들을 나라와 민족의 기둥으로, 미래의 담당자로 내세우지 못했다.

오직 청년중시의 위대한 력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조선에서만이 청년이란 그 이름이 강국의 대명사로, 영광으로, 자랑으로 빛나고있다. 결코 청년들의 수가 많아서나 그들의 젊음이 백배해서가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신 청년운동의 역세 뿌리는 공화국이 대를 이어 청년강국의 바탕을 곳곳이 이어올수 있게 한 억만년재보로 되었으며 이런 고귀한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공화국은 로쇠를 모르는 청년강국으로 빛을 뿌린다.

청년 강국의 존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신 청년운동의 역세 뿌리는 공화국이 대를 이어 청년강국의 바탕을 곳곳이 이어올수 있게 한 억만년재보로 되었으며 이런 고귀한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공화국은 로쇠를 모르는 청년강국으로 빛을 뿌린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령도자로 모시어 가장 활력에 넘친 청춘기를 긍지높이 구가하는 오늘 청년들은 영웅, 위훈, 열정, 사랑, 미래라는 이름으로 불리운다.

청년강국이란 쉽게 말해 청년들이 강하여 나라가 강하다는 의미이다. 조선청년들은 과연 무엇으로 강했인가. 인강

의 굳셈과 힘을 론할 때 기본은 사상정신력이다. 조선의 청년들이 행성의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청년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사상정신적특질은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흠모하며 따르는 바로 그것이다.

령도자와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령도자의 뜻에 인생의 좌표를 정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해나가는 청년대군, 선군의 총대에 서리받치는 수호의 기상, 남을 위해 피와 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고결한 정신적품모로 하여 청년강국의 존엄은 더욱 위엄있고 숭엄하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과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장을 비롯한 청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힘차게 울리는 《물불을 가리랴, 당의 부름에!》의 구호는 조국의 젊음을 더해주는 청년들의 심장의 웨침이다. 청년들속에서 발휘되는 아들

청년 강국의 미래

조선청년들의 영원한 명절인 8.28청년절, 여기에 피땀은 청년들이 창공에 치솟는 포부와 리상을 지니고 단숨에 산악도 떠옮기고 날바다도 메우면서 시대를 뒤흔들고있는 조선의 오늘이 있고 미래가 비껴있다.

청년절은 오직 청년중시, 미래사랑의 정치로 력사상 처음으로 청년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한 조선에서만이 있을수 있는 의의있는 명절이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청년문제해결을 위해 자기만의 정치를 펼쳐가지만 아직도 많은 청년들이 사회의 우환거리로 되거나 방황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극심한 취업난에 직면해 암울한 청년세대를 나타내는 신조어들이 속속 만들어진다고 하면서 이런 글을 실었다.

다운 소행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얼마전 공화국에서는 제2차 전국청년미용선구자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어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그들속에는 20살 꽃나이에 부모없는 7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치너어머니》, 화려한 도시를 떠나 최전연섬마을 교원으로 사는 치너, 평양을 떠나 피아노노건반을 두드리던 고운 손으로 대홍단의 감자꽃을 가꾸는 치너도 있었다.

사상과 신념으로 강건하고 정신도덕적으로 훌륭하며 슬기와 용맹에서 담찬 청년들의 대부대, 강성국가건설의 앞장에서 선봉적역할을 하는 청년들의 대집단이 청년강국의 참모습이다.

청년강국의 존엄은 그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이다.

《... (삼포세대)는 불안정한 일자리, 학자금대출상환, 기약없는 취업준비, 치솟는 집값 등 과도한 삶의 비용으로련애, 결혼, 출산 3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한다. 경제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집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오포세대>도 생겨났다...》

지금은 《5포세대》를 벗어나 희망과 꿈마저 포기한 《7포세대》가 출현하여 사회적우려를 자아내는것이 바로 남조선의 현실인것이다.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힘있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포부와 열정을 깡그리 짓밟힌채 비판과 질타속에 모대기며 온갖 사회악을 빚어내는것이 자본주의사회 청년들의 비참한 모습인것이다.

하지만 조선청년들은 나라와 인민의 사랑과 기대속에 양양한 앞날을 열어나가는 가장 활

력있는 부대로,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총진군대오의 척후대가 되어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 질풍같은 속도로 시대의 진군로를 힘차게 열어나가고있다.

—청년들의 발걸음속도가 높아야 조국의 진전속도가 빨라진다.—

—백두산칼바람에 돛을 달고 대대손손 물려줄 조국의 만년재부를 일떠세우자.—

—청년들이 강성국가문패를 남먼저 달게 하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안겨주신 하늘같은 믿음과 대해같은 사랑을 안고 오늘 조선청년들은 사회주의조국의 영예로운 수호자, 강성국가건설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하고있다.

조선청년들의 무궁무진한 힘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마련하는 추동력이며 통일강국을 앞당기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얼마전 준엄한 정세로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되었을 때 100여만의 청년들이 인민군대에 탄원한것처럼 결전의 시각에 조국수호의 앞장에 나서는것도 다름아닌 청년들이다.

청년들의 모습에 그 나라, 그 민족의 오늘뿐 아니라 래일이 비긴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고결한 충정으로 가슴끓이고 부강조국건설에 앞장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며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이런 끝없는 청년대군을 가지고있어 나라가 강하고 우월한 정권과 제도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굳건하며 조선은 오늘은 물론이고 래일에도 영원한 김정은조선으로 세계에 그 존엄과 위용을 한껏 떨쳐가게 될것이다.

래양의 빛발속에 만발한 화원처럼 아름답고 짙고 역센 조선의 청년대군을 보면서 온 겨레는 통일강국으로 이어질 청년강국의 래일을 락관한다.

본사기자 리경순



만 천 하 에 드 러 난 미 국 의 북 침 전 쟁 기 도

내외호전세력들이 공화국을 겨냥하여 강행한 대규모적인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28일 막을 내리었다.

3만여명의 미군과 5만여명의 남조선군을 비롯하여 방대한 침략무력과 최신전쟁장비들이 투입되어 실질의 분위기속에서 감행된 이번 전쟁연습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위협만한 불장난소동이었다.

하기에 평화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우리 민족은 물론 국제사회계가 합동군사연습을 단죄 규탄하며 그 철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전쟁열에 들뜬 내외호전세력들은 시대의 흐름과 우리 민족의 의사에 역행하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였던 것이다. 이번에도 내외호전세력들은 저들이 벌리는 전쟁연습소동에 대해 《년례적으로 진행되는 방어적 훈련》이니, 《투명성》이니 하며 여론을 기만하는 한편 《정전협정의 준수》를 운운하며 추종세

력들을 참관의 미명하에 훈련장에 끌어들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눈감고 아용하는 격이었다.

내외호전세력들이 그 무엇을 명분으로 내세워도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범죄적용계의 집중적행위로써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은 가리울 수 없다.

그것은 이번의 연습과정이 잘 말해준다.

전쟁연습기간 내외호전세력들은 한계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무력을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기동전개하여놓고 북에 대한 선제공격과 전면전격의 성격을 띤 도발적인 훈련들을 광란적으로 진행하였다. 내외호전세력들은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연합작전계획을 숙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떠들면서 이번 훈련기간 북침전쟁 각본에 따른 미군과 남조선군사회의 작전수행절차와 실동능력을 숙달완성하고 남조선군과 행정기

관, 민간의 전쟁준비상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전쟁연습에서도 내외호전세력들은 공화국의 《수부부제거》와 《평양연》 합동군사연습은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지 투입하였다. 북을 자극하는 도발적인 이러한 위협천만 불장난소동이 이번 합동군사연습기간 시도때도 없이 벌어졌다.

사태의 위험성은 여기에만 극한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이번 합동군사연습기간 지난 시기 썩었던 북침전쟁각본인 《작전계획 5027》을 더욱 완성한 《작전계획 5015》를 적용하고 실전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것을 숙달하였다.

핵, 미싸일, 생화학무기 등 북의 그 무수 《대량살상무기의 제거》에 중점을 두고 일단 유사시 그 대상들을 선제타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작전계획 5015》를 이번 연습기간에 적용하였다는 것은 내외호전세력의 북침전쟁

열기가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렀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을 통해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미국의 범죄적기도가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기마련이다. 이러한 명목으로 미국이 매일과 같이 남조선에서 벌리는 북침전쟁연습소동이 언제 실전으로 넘어가 이 땅에서 제2의 조선전쟁의 불집이 터질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공화국을 압살하고 지배하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어제도 오늘도 변하지 않았다. 이 정책실현을 위해 미국은 《힘》의 동맹을 만능으로 여기며 버리려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에게 한갓 썩은 나무가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조선의 하늘밑에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침략자, 도발자들을 멸망의 비참한 운명에서 구원해 줄 수 없다.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호전세력들은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과 같이 썩을 지고 불속이 튀어드는 어리석은 망령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주광일

불법조약을 강압날조한 일본의 죄악

8월 29일은 일제가 《한일합병조약》을 강압날조하여 공포하고 삼천리강도를 완전병탄한 때로부터 105년이 되는 날이다.

역사에 《경술국치일》로 새겨진 이날을 맞으며 온 겨레는 40여년간이나 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 죽음과 재난을 들의운 일제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심을 금치 못하고 있다.

1868년 《명치유신》 이후 조선에 대한 침략책동을 보다 약탈하게 감행해오던 일제는 1905년 《을사5조약》과 1907년 《정미7조약》의 날조를 통해 조선 봉건정부의 외교권과 내정권을 완전히 강탈하였다.

그후 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과 식민지배를 합법화하기 위해 일제는 1910년 8월 22일 만고역적 리완용을 비롯한 친일매국역적들과 야합하여 8개 조항으로 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였다.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한 일제는 우리 인민의 거세찬 반일투쟁기세에 겁을 먹고 공포하지 못하고 8월 29일에 가서야 그것을 공포하였다.

일제가 위협과 공갈로 《한일합병조약》을 조작해낸 것은 국가적실체로서의 봉건조선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역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악랄한 국권강탈책동이었다.

조선침략과 강점을 실현한 일제는 가장 가혹한 식민지파쇼통치로 우리 인민에게 무조건 굴종만을 강요하면서 참혹한 불행과 고통, 재난을 들의운 하였다.

일제는 강점기간 100여만명의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으며 840만여명의 청장년들을 강제로 낫설은 이국땅에 끌어가 노예로동을 강요하고 총알받이로 내몰았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강제람치, 유폐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들었다.

뿐만아니라 조선사람의 말과 글, 이름마저 빼앗고 우리 나라의 귀중한 역사문화재들과 자연부원을 강탈해 갔다.

나라잃은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참으로 우리 민족은 나라를 빼앗긴 탓에 근 반세기동안 피눈물나는 식민지망국노의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실로 일본이 우리 민족을 상대로 저지른 과거의

죄악은 천추만대를 두고 씻을 수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엄청난 죄악이다.

그러나 일본은 패망 7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저들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반인륜적범죄에 대해 성근히 사죄하고 배상하지 않고 있다.

얼마전 일본수상이 《태평양전쟁패전 70년담화》를 발표하면서 과거저들의 침략역사에 대한 성근한 인정과 사죄의 내용은 하나도 없이 요리조리 회피하면서 말장난질을 한 것은 일본집권층이 아직도 과거범죄를 성근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과거청산회피는 결국 수치스러운 침략과 범죄의 역사를 되풀이하겠다는 소리이다.

실제로 지금 일본은 《자위대법》, 《무력공격사태법》, 《주변사태법》 등 10개 법안을 일괄한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과 국제분쟁에 대처하는 다른 나라 군대에 대한 후방지원을 언제든 지 가능케 하는 《국제평화지원법안》 등이 포함된 안전보장관련법안을 채택함으로써 본격적인 군사적외침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합법적공간을 마련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일본이 수치스러운 과거의 죄악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무분별한 군국화와 해외침략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그것은 일본의 중극적과멸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김연희



서방의 제제와 위협에 맞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싸고 로씨야와 미국 사이에 정치적대립과 군사적대결이 심화되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최근년간 우크라이나에서는 일련의 문제를 발단으로 하여 분쟁이 일어나고 사회적질서와 혼란이 조성되었다. 이것은 그대로 크림의 로씨야연방가입과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의 독립선포어로 이어졌다.

그후 우크라이나에서는 정부군과 민병대들사이의 물리적충돌이 나날이 확대되고 이로 하여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들은 이 모든 책임을 로씨야에 넘겨치우면서 이 나라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제재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는 한편 군사적압력소동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일 미국방장관 카터는 국방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씨야가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는데다가 2014년에 있는 크림병합을 통해 《중요한 국면에서 적대분자로 행동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의 전개능력을 질량적으로 조정하고있다고 력설하였다. 그러면서 미군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틀거리를 중심으로 동유럽방위를 강화하고있다고 떠들어댔다. 말하자면 우크라이나문제를 걸고 로씨야에 대한 군사적대결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로골화한 것이다.

미합동참모본부의 장으로 취임하는 미해병대사령관 단포드도 7월 국회에서 로씨야가 《최대의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강경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내에서 로씨야에 대한 군사적대결을 고창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는 속에 우크라이나와 미군이 주도하는 나토와의 합동군사훈련 《씨 브리즈-2015》가 8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남부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이런 속에 미국은 2020년까지 50척에 가까운 군함들을 현대화하여 로씨야를 겨냥한 유럽미싸일방위체계구축에 리용하려 하고있다. 날로 로골화되는 미국의 군사적대결소동에 로씨야가 주동적으로 맞받아나가고있는 것은 당연하다.

로씨야는 짧은 기간에 《Ty-22M3》 초음속 폭격기와 크림지역에 배치하여 항공부대의 공격력을 강화할것을 계획하고있다.

로씨야국방성은 앞으로 임의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미싸일들과 핵무기를 탑재한 비행기들의 대수가 증가될것이라고 밝히었다. 이 나라 해군 사령관이 전한데 의하면 올해말까지 10척의 전투함선들과 40척이상의 보급선들이 해군에 납입된다고 한다. 현재 로씨야의 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10대이상의 직승기와 약 450명의 보병을 실어나를 수 있는 상륙함을 건조하기 위한 사업을 내밀고있다.

이밖에도 이전 소련의 해체로 1990년대에 중지했던 신형무기개발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있다. 로씨야는 군사장비들을 현대화하는 사업과 함께 각종 훈련으로 군부대들의 실전능력을 높이고있다.

얼마전 로씨야의 아스트라한주에 있는 아슬루크사격장에서는 《C-300》(파보리트)대공미싸일체계의 실란사격훈련이 진행되었다.

300명의 군인과 50여대의 항공우주무력 반항공군련합부대들의 전투기술기체가 참가한 이 훈련은 약 40개의 가상공중표들과 5개의 《까만》, 《아르마비르》형 목표미싸일, 기타 란도 및 공기동력목표 순항목표들을 소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로씨야

국방성 공보국 항공우주 무력 담당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항공우주 공격수단들과 가상적사이에 실전환경을 조성한 것이라고 밝히었다. 한편 8월 22일 로씨야전력로켓군은 아스트라한주의 까부스젠 야르사격장에서 《도뿔》대륙간탄도미싸일의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지금 약 1500명의 군인과 80여대의 비행기 및 직승기가 로씨야남부지역에서 진행되는 훈련에 참가하고있다고 한다.

한편 로씨야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변나라들과의 군사훈련도 강화하고있다.

로씨야와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따지키스탄 등 여러 나라의 군부대들이 참가하여 얼마전 로씨야에서 진행된 집단안전조약기구 집단신속반응무력의 《호상협력-2015》 훈련이 그 하나의 실례이다.

분석가들은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문제를 걸고 로씨야에 군사적압박의 도수를 높일수록 그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로씨야의 군사적조치가 일층 강화될것으로 분석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응철

인권지옥에서 울리는 소리 《죽창을 달라》

최근 남조선에는 《헬조선》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되었다.

《헬(hell)조선》이라는 말은 《지옥같은 한국》이라는 의미다. 거기에 실린 글들의 일부를 소개한다.

— 이 사회에서 살기 어렵다 —

《하라는대로 했는데 돌아온건 좌절뿐》, 《세상은 하중만만 두들겨 패다》, 《자살해야 우리의 아픔을 알아줄것》, 《황금만능주의에 외모지상주의에 밤늦게까지 술치르고 성매매나 해대는 천박하고 값싼 문화》, 《이 지옥같은 나라, 내게 죽창을 달라!》

— 《금수저》와 《똥수저》 —

《유치원시절 금수저

는 영어유치원을 다니지만, 똥수저는 어린이집에서 교사에게 폭행당한다. 초, 중, 고교시절 금수저는 어학연수를 떠나지만 똥수저는 PC방에서 게임을 한다. 대학시절 금수저는 화려한 파티를 즐기지만 똥수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대학졸업후 금수저는 (락하산)으로 좋은 직장에 취업하지만 똥수저는 면접관에게 90° 인사만 한다. 은퇴후 금수저는 해외여행하면서 로후를 즐기지만 똥수저는 판자집에서 쓸쓸히 늙는다. 《우리는 똥수저다. 똥수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졸업후까지 (국가)와 기성세대가 하라는대로 다 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 다. 이 나라는 똥수저에

게 지옥이다.》 이밖에도 《대한민국의 《대》를 《개》로 바꾼 《개한민국》, 《한국》 탈출을 뜻하는 《탈조선》, 메르스사태를 비꼬는 《동방역병지국》 등의 사회를 저주하고 비판하는 글들이 허다하다.

이에 대해 남조선잡지 《신동아》는 「과거엔 저항수단으로 분신을 택했다. (헬조선)이나 《죽창을 달라》는 분신의 순화된 형태처럼 비친다. 절망적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마지막 몸부림 같다.」면서 《헬조선은 반국가적행위일가, 아니면 숨넘어가기 직전의 마지막구조 요청일가.》라고 반문하였다.

본사기자

이민들이 누리는 참다운 사회경제적 권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경제적 권리를 원만히 누리며 참다운 물질경제생활을 향유해가고있다.

무엇보다 로동에 대한 권리를 원만히 보장받고있다.

로동할 나이에 이른 모든 공민들은 성별, 민족별, 사회계층소속하에 관계없이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고있다.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은 금지되고있다. 로동부문의 특성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의 길이를 8시간, 7시간, 6시간 등으로 차이있게 정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로동의 권리는 로동보호사업을 생산에 앞세우는데 대한 관심과 로동보호시설을 끊임없이 개선완비할데 대한 국가적원칙에 따라 철저히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하에서 행사되고있다.

모든 근로자들은 성별, 나이,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하여 같은 보수를 받으며 휴식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고있다. 휴식의 권리는 8시간로동제에 의한 일간휴식, 일요일주간휴식, 명절휴식, 년간정기유급휴가와 보충휴가, 산전산후휴가,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과 같은 휴식제도를 통하여 실현되고있다.

이러한 휴식제도들은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서 소모한 힘을 충분히 회복할수 있게 하며 왕성한 원기를 가지고 로동생활에 참가할수 있게 담보해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은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도 충분히 보장받고있다.

해당 기관들에 의하여 사회보장자들이 빠짐없이 등록되고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사회보장연금과 보조금이 지불되며 그들의 생활정형이 정상적으로 료해장악되고 필요한 대책들이 취해지며 여러 계기에 사회보장자들을 적극 도와주고 우대하기 위한 사업들이 널리 조직되고있다.

사회보장자들은 국가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보장받고있다.

사회보장사업에 필요한 로력, 자금, 설비, 물자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은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도 충분히 누리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에 의한 보수와 함께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이라는 새로운 보수형태를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충분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고있다.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에 태어나자부터 먹고 입고 쓰고 살 권리를 가지고 평등하게 생활하고있다. 인민들은 국가적혜택에 의하여 국가기본건설투자로 건설된 살림집을 배정받고 그 사용료를 거의 무상이나 다름이 없이 매우 낮게 지불하며 농민들은 살림집사용료를 내지도 않는다. 국가의 이러한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누구나 쌀값, 주책사용료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고있다.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소장 홍철화

북과 남이 보는 조선의 통일문제

로씨야인터넷잡지에 실린 글

로씨야인터넷잡지 《노보예 위스트초노예 오보즈레니예》(7월호)가 《서울과 평양이 보는 조선의 통일문제》라는 제목으로 력사학박사이며 로씨야과학원 동방학연구소 조선 및 몽골과장 알렉산드르 위론조프가 쓴 글을 실었다.

필자는 북과 남의 조선인들에게 있어서 신성한 통일문제가 또다시 국제적관심의 초점에 놓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관심을 가지고있는 독자들은 남조선의 현 《대통령》 행정부가 북남사이의 신뢰조성문제를 선차적과제의 하나로 선언하였다는것을 기억할것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분석자들은 이 로선이 실질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붕괴와 정권교체》를 촉진시켜 통일을 앞당기는 정책이었다는 견해에 도달하였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주로 통일후 서울이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가 벌어지고있다. 즉 통일후 《과파된》 경제를 어떻게 복구하고 《흡수통일》된 땅에서 어떤 규범(남조선의 규범인지, 국제적인 규범인지)에 기초하여 법적공간을 마련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적적》인 현 상층부를 어떻게 재판할것인가 하는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산 품의 가족을 벗기려드느》 시기상조의 일로 간주하고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엘리트들

은 실지 그렇게 추론하고 있는 형편이다.

2014년 3월 박근혜는 드레즈덴에서 연설을 하면서 남측이 북측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도이칠란드식》 통일구상을 내놓았다. 연설의 조선어원본에는 《흡수》라는 단어가 로골적으로 표기되어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흡수된 도이칠란드민주주의공화국에 자리잡고있는 드레즈덴을 장소로 선정할것자체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2013년 11월 《한국대통령》 박근혜가 발표한 포괄적인 《유라시아발기》 역시 그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이다. 물론 이 구상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보다 넓은 방대한 지역이다. 그러나 《유라시아발기》를 분석해보면 구상의 두번째 주요과제는 《북조선의 개방과 비핵화를 통해 유라시아대륙의 평화적변영을 이룩하자》는것이다.

《한국정부》 대변인은 《계획의 기본목적은 유라시아사회에 평화변영의 거대한 물결을 조성하는것이다. 이 물결은 유럽과 서남아시아, 중동에서 어떤 규범(남조선의 규범인지, 국제적인 규범인지)에 기초하여 법적공간을 마련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적적》인 현 상층부를 어떻게 재판할것인가 하는것이다.》 라고 말하

였다.

이 제의가 평양에서 반대의견에 부딪친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2014년 9월 리수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김일성주석이 내놓은 고려민주변방공화국 창립방안에 기초한 통일구상을 상기시키면서 남조선의 《평화적》인 발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었다.

북과 남의 공식대표들은 오늘도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을 계속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고위인물들속에서는 통일준비과정에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참가가 절실하며 필수적이라고 력설하고있는데 사실 미국의 지지속에 도이칠란드의 통일도 가능하게 되었다.

《나는 미국이 조선의 통일을 확고히 지지하고 도와준다면 통일을 바라는 우리의 념원은 현실로 될것이라고 확신한다.》 고 전 통일부 장관 류길재는 2014년말 워싱턴에서 말하였다.

북조선학자들 역시 자기식의 대답을 주고있다.

2015년 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평화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오늘의 현실은 다음과 같다. 북과 남은 70년동안 상반되는 사상과 정치체도에 의하여 규정된 서로 다른 궤도를 따라 발전하여왔다. 더우기 어느측도 자기의 사상과 정치체도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

다. 때문에 어느 일방이 자기 체도를 강요하려 한다면 반드시 전쟁을 몰아오게 되며 여기에 이웃나라들도 끌어들여게 된다. 북과 남은 물론 그 이웃들의 군사적잠재력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씨나리오에는 《과국적인 아르마게돈(세계의 마지막전쟁)》을 초래할것이며 그 비극적후과는 1950년대의 조선전쟁과 오늘날의 중동 및 우크라이나 군사적분쟁들과 대비도 되지 않을것이다.

북조선의 보고서작성자는 분석에 기초하여 두제도의 공존이 조선의 통일을 위한 유일한 실현방도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제도의 차이는 《아킬레스건》이 아니라 북남공존을 위한 필요성의 원인이자 북과 남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어 정치체도의 특성을 호상존중할 때 북남사이의 협조는 순탄하게 발전하게 되며 통일을 달성하려는 궁극적목적은 문제라도 되지 않을것이다.

이에 있어서 평양은 통일로상에 서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맹목적으로 본따지 말아야 하며 조선의 현실과 특성에 맞는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들에게 의존하거나 통일문제에서 우리의 결정을 외부세력에게 허락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고 간주하고있다.

독자들이 조선통일문제에 대한 두 조선의 립장을 자체로 평가할수 있게 글을 여기서 마치는것이 옳다고 본다.

본사기자

《〈세월〉 호참사 500일, 잊지 않겠다는 약속 지켜달라》

남조선의 《세월》호참사 광주시민대책회의가 24일 오전 금남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 호참사 500일 행동주간》을 선포하고 《세월》호 진실규명과 인양을 위해 추모행사에 함께 해줄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대책회의 상임공동대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광주진보정치포럼 공동대표, 공무원로조 광주본부장을 비롯한 수십여명이 참가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세월〉 호인양과 진실규명에는 굵은 《정부》가 공안탄압에는 열과 성을 다하고있다.》면서 《국민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위헌적인 차별과 살상수준의 최루액대포를 탄사했다. 그것도 모자라 박래군 4.16련대 상임운영위원장을 구속하는

등 진실을 묻는 국민들을 탄압하고있다.》고 《정부》를 규탄하였다.

이어 《〈세월〉 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550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정부》는 집요하게 진상규명활동을 방해해왔다.》고 강조하

고 《이에 4.16련대는 《세월》 호인양, 진상규명, 안전사회대책 및 추모지원을 위한 82대과제를 발표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진상규명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세월〉 호 500일 추모행사에 다시한번 잊지 않고 행동함을 보

여달라.》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죽은 사법정의를 살려달라》

남조선에서 이전 《총리》였던 한명숙이 지난 8월 20일 징역 2년형을 받고 24일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되었다.

2007년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2010년 재판에 기소된 한명숙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판결받았다.

판결 직후 한명숙은 《돈을 주었다는 《중인》은 재판장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량심고백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돈을 준 사람이 없는데 돈을 받은 사람만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한 날조된 사건이 되었다.》고 밝히고 서울구치소에 구속되기 전에 있는 고별행사에서는 《저는 오늘 사법정의가 이 땅에서 죽었기때문에 상복을 입었다. 죽은 사법정의를 살려내달라.》고 토로하였다.

한명숙에 대한 유죄판결과 구속수감을 두고 야당은 《정권》에 아무하는 정치검찰, 정치법원이 계획적으로 조작한 치졸한 정치보복의 결과라고 략인하고있다.

새정치민주련합 대표는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일련의 사건관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했다는 우려를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유죄판결은 정의에 대한 유죄판결, 진실에 대한 유죄판결, 《사법부가 권력의 편, 불의의 편에 서있다》는것을 고백하는 사건》이라고 비난하였다.

같은 당 원내대표는 《아주 독선적이고 감성적인 정치검찰의 기소》, 《〈래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을 말살하려는 신호란》이라며 《성완중사

건의 인물들은 검찰에서 면피부를 받고, 정보원대선개입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내어 진실을 폭로했던 권은희의원은 정치검찰에 의해 거꾸로 죄인취급을 받고있다.》, 《정의와 원칙이 서있어야 할 자리에 여당부죄, 야당유죄라는 역지가 횡행하고있다.》, 《〈긴급조치〉 시대로 돌아간 새로운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을 향한 《편파적수사와 기소》에 맞서 싸울것을 다짐하였다.

본사기자

민족음악을 이질화시키는 《대중국악》

본사기자

지금 남조선에서는 《대중국악》이라고 하는 피이한 음악이 민족음악을 기형화, 이질화시키고있으며 민족성을 어지럽히고있다.

일명 《퓨전국악》이라고 불리우는 이 《대중국악》이라는것은 이른바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제창하면서 전통악기에 서양악기를 배합하고 민족선율에 미국식생활양식을 타고진 파된 퇴폐적인 자즈와 록크 등을 혼합하여 만든것이다.

우리의 민족음악과는 거리가 먼 이러한 《대중국악》이 남조선사회에 발생하여 류포되게 된 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북고주의적인 《전통국악》이 발전하는 시대와 인민들의 지향에 따라서서 못하는것으로 하여 차츰 사람들의 외면을 당하게 된것이다.

모든 력사적시대는 그

에 맞는 음악을 요구하며 음악은 그 시대를 반영하게 된다.

그리고 음악은 응당에 사회적본성에 맞게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방후 남조선의 민족음악분야는 왕궁이나 사찰들에서 사용하던 궁중음악과 종교음악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음악에술과는 거리가 먼 고립적이며 일면적인 민족음악유산을 북고주의적으로 이어가게 되었다.

그것이 남조선의 전반적대중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바로 북고주의적인 《전통국악》이 인민대중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것을 리용하여 미국이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의식을 마비시키고 말살하기 위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의 일환으로 썩어빠진 미국식생활양식을 주입한것이 또 다른 리유였다.

미국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민족자주의식을 없애고 미국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기 위하여 《음악의 세계화》, 《법세계적인 음악》을 제창하면서 퇴폐적인 음악들을 남조선음악분야에 끌어들이고 대대적으로 류포시켰다.

이런 《세계화》의 호

름속에 휘말려들여간 남조선의 음악계는 썩어빠진 부르조야말세기적음악의 축소판, 모조품들로 범람하게 되었고 이를 받아들이는 남조선의 《음악가》들은 《전통국악》과 미국식퇴폐음악의 혼합물을 가리켜 소위 《대중음악》, 《대중국악》이라고 표방하였던것이다.

남조선사회에 류포된 《대중국악》은 우선 《국악에술과는 거리가 먼 고립적이며 일면적인 민족음악유산을 북고주의적으로 이어가게 되었다.》 그것이 남조선의 전반적대중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또한 《민족음악》의 허울을 쓰고 하나의 음악에술을 창조하고 꽃피워우려 민족의것이 아닌 미국식생활양식의 배설물인것이다.

《대중국악》 실패 하나만을 보더라도 남조선사회야말로 서양풍, 왜풍에 휘말려 단일민족의 혈통이 흐러지고 민족문화와 전통이 사라져가는 식민지압박사회임을 알수 있게 해준다.

리성혁

고려청자의 빛을 이어간다

《고려청자의 깊이있고 원숙한 색깔과 다양한 형태는 사람들을 완전히 매혹시킨다. 뛰어난 고려청자상감기술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신비한 조선의 고려청자, 어떻게 문양을 새겼기에 어근하고 상쾌해보이는가. 남조선에서 만든 도자기는 이에 대비조차 안 된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 일본 야마구찌현 시모노세키에서 열린 고려청자전시회에서 수많은 일본사람들과 재일동포들은 김일성상계관인이며 인민예술가인 만수대창작사 도자기창작단의 우치선창작가가 출품한 고려청자기를 보며 신비함과 경탄을 금치 못했다.



《아무렴, 자식이 아버지만 할라구.》하며 머리를 기웃거리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는 늘 새롭고 기발한 착상으로 사람들을 놀래웠다.

고려청자의 옛모습을 복원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시대적미감에 맞게 새롭게 창작할 일념으로 탐구와 열정의 낮과 밤을 이어가던 나날 그가 창작한 순화장식투각꽃병을 비롯한 고려청자기를 남조선의 제주도에서 열린 북남통일미술전에서 유형상기법이 독특함으로 하여 이목을 끌었다.

고려청자의 전통적인 상감기법인 인장무늬를 위주로 하면서 독특한 형태의 겹상감장식기법들을 현대 고려청자창작에 재치있게 활용해온 그는 창작생활 20여년간 가지는 훌륭한 도자공예작품들을 수없이 창작하여 이름을 떨쳤다. 그가 창작한 운학무늬투각청자꽃병은 2007년 7월 동북국제도자기박람회 에서 1등상을 받았다.

현재 조선미술박물관에는 우철룡이 고려청자의 기법들을 살리면서 현대적미감에 맞게 독특하게 창작한 학, 구름무늬상감청자꽃병, 목란꽃상감청자꽃병, 꽃과 새상감청자

꽃병 등 10여점의 도자공예작품들이 국보로 소장되어 있다. 너성적인 섬세성으로 지난기간 여러 국제도자기예술펠람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도자공예인어머니투각장식꽃병을 출품하여 최고상인 최우수창작상을 받은 딸 우부단역시 재능이 뛰어난 도자기창작가이다.

오늘 만수대창작사 도자기창작단의 우치선가족 창작실에서는 아들 우철룡, 딸 우부단, 손자 우영진, 손녀 우영란이 대와 대를 이어가며 고려청자기창작에 온념을 바쳐가고 있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만수대창작사 도자기창작단에서 우치선의 자식들이 대를 이어 고려청자기를 창작하고있는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중세도자공예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조선의 귀중한 문화재보의 하나인 고려청자기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워가는 이런 재능있는 사람들에 의해 더욱 빛을 뿌리고 있다.

본사기자

《고려청자의 왕》

우치선, 그로 말하면 18살나던 1937년에 서울에서 열린 전국도에전에 고려청자를 처음 출품하여 입상시킨 때로부터 50여년을 말그대로 흙, 불과 함께 살며 고유한 고려청자기의 상감기법을 탐구함으로서 12세기에 전성하다가 자취를 감추었던 고려청자의 700여년의 깊은 잠을 깨우는데 성공한 현대고려청자의 대가였다.

청자국화무늬단지(1964년), 해바라기상감꽃병(1978년), 평양풍경무늬꽃병(1980년), 구름학무늬꽃병(1988년), 구름학무늬반상기(1997년)를 비롯한 우치선의 작품들은 어근하며 깊이있고 아름다운 색조와 독특한 장식기법 등으로 하여 주변국

등 세계 많은 나라에 진귀한 보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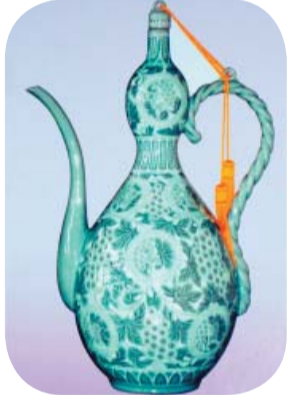
일본에서 열린 고려청자전시회에서 《고려청자의 왕》으로 명성을 떨친 그의 작품에 어쩌나 매혹되었던지 일본 오사카시의회가 그에게 오사카명예시민증을 수여한적도 있었다.

그런 그가 지난 2003년에 84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그를 두고 가슴 아파하였다. 현대고려청자의 개화기는 여기서 끝나는것인가. 그러나 고려청자의 대는 오늘도 곳곳이 이어지고 있다. 고려청자의 빛은 그의 아들 우철룡을 비롯한 후손들의 가슴속에 맥맥히 살아숨쉬고 있다.

자식들도 대를 이어

평양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와 함께 만수대

창작사 도자기창작단에서 일하게 된 우철룡을 두고



사화 등 경암 (4)

글 박민한, 그림 김윤일

지켜보던 통인은 좀체로 다른 곳에 발걸음을 돌리려 하지 않는 두사람앞으로 다가와 다른 판리들처럼 새로 등극한 상감알에 충절을 맹약하면 부귀영화가 차례지리라것을 은근한 말로 귀뜸하는것이였다.

손등은 천천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건 부귀영화나 목숨에 앞서 인륜의 근본인 의리와 맹약을 지켜서이거늘.》 하고 하경과 함께 궁궐을 지켜보는데 하영없이 흐르는 눈물이 조복을 적시였다.

이러 《아- 전하!》하며 주저앉아 바위를 치며 통곡하였다. 이들에게 세세년전 고려왕조의 혈통을 지니고 룡상에 앉은 임금만이 유일무이한 왕이였으니 그 왕을 배신하고 역신의 슬하에서 벼슬을 사는것은 곧 처육이였다.

그리고 일신의 목숨에

앞서 임금과 신하간의 의리를 지키는것은 가슴속 깊이 뿌리내린 인륜대의이기도 하였다.

이젠 제 조정의 령이 사라진 지금의 형편에서는 제 량심껏 행하는 길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손등은 《자교로 신하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거늘 또 다른 길이 어데 있으리오》하며 무릎을 꿇고 침착한 자세로 판을 벗고 조복을 풀어헤쳤다. 하경도 《옛 성현들이 신하는 목숨으로 충의를 다해야 한다 하였거늘.》하며 초연히 의관을 벗어 가려놓았다.

손등의 눈물어린 눈에 선 애상적인 쓸쓸한 빛이 아니라 불꽃이 흘렀다.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음으로 받들어야 하거늘, 여기에 무슨 두말이 필요하겠소.》하며 하경과 함께 궁궐을 향해 애동망극히 호곡하였다. 한참만에 일어난 이들의 낮빛엔 다가온 죽음

앞에서 오는 공포가 아니라 주장이 당당하고 순결 무구한 지조가 력력히 어 려있었다.

이어 주병의 정든 산천과 하늘이 멀리를 우러르며 그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데 조용히 입속말을 뇌이는것이였다. 이들도 퍼붓는 인간이 분명한데 최후의 순간이라고 어찌 마지막원을 그려보지 않을것인가. 그것은 십중팔구 가장 애무하고싶은 제 손자를 그려보는 마음 들일수도 있었으리라.

미구하여 왜서인지 머리를 조용히 저었다. 역신의 칼아래 고운 말 한마디만 내쳐도 죽음을 피하고 두별자식을 다시 한번 품안아볼수 있는 그들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배신과 변심을 뜻하는 그 한마디가 미래에 살 두별 자식에게 가슴저미는 쓰라린 추억으로 갈라지는 고두고 제 조부(조상)를 원망할 빌미로 된다것을 다른 판리들은 몰랐어

도 두사람은 벌써 오래전 부터 너무나 잘 알고있었다.

력사속의 의로운 인간일수록 남다른 애정속에 서도 순간과 같은 현재의 욕망에 앞서 사후에 길이 드리워질 일신과 가문의 명예와 영예를 그중 살아생전의 귀중한 보물로 간직하는 법이다.

한편으로는 생과 죽음



의 의미를 평온한 날에도 각자가 제 나름으로 어떻게 감수하고 의식하였는가에 따라 판시속에서 충신과 역신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겠는가. ... 이윽하여 두사람은 상투를 풀어헤치고 마주보

잡지 《개벽》과 리돈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찌기 길림을 중심으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1920년대 후반기에 잡지 《개벽》을 애독하시면서 리돈화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억을 더듬어보면 《개벽》의 필자들중에서 글을 그중 많이 쓴 사람이 천도교중앙의 편집과 주임이며 《개벽》의 편집인인 리돈화였다고, 민족적인 체면의 유지, 도덕적인 자아완성을 주장한 그의 글들을 보아 그는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한 개국하고 량심적인 지식인, 종교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리돈화(호는 야뢰)는 1884년에 함경남도 고원군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1900년대초부터 《인내천》, 《보국안민》을 리념으로 하여 반봉건반침략투쟁과 나라의 근대화를 이룩할것을 목적으로 한 동학(천도교)에 관여하기 시작하였으며 동서고금의 철학서적들과 각종 종교교리들을 꾸준히 탐구하였다.

리돈화는 정도준, 박태홍 등과 함께 천도교청년교회 강연부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천도교청년회로 개칭하고 그 산하에 운동적색채를 띤 《개벽》잡지사를 설립하였으며 1923년에는 조직을 천도교청년당으로 개편하였다.

천도교청년당은 《후천개벽》하여 지상천국을 건설할것을 지향한 천도교의 전위조직이였다.

그는 잡지에 《인내천연구》를 비롯한 수많은 글을 써내 당대의 제사, 문필가로 널리 알려졌다.

그후 그는 천도교중앙의 지도과장, 도령이라는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되였다. 그리하여 리돈화는 동학의 1세교주 최재우, 2세교주 최시형, 3세교주 손병희를 잇는 천도

교교주급의 중진인물로 지목되게 되었다.

해방전시기 우리 나라 지식인들가운데는 홍명희를 비롯한 손꼽히는 재사들이 있었는데 리돈화는 그러한 재사계열에 속할 만 한 사람이였다.

조국이 해방된 후 그는 양덕에서 살면서 천도교에 관계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해방하시고 개선하신데 대하여 커다란 환희를 가지고 수령님을 열렬히 흠모했으며 수령님의 영상을 뵈거나 육성을 듣는 날에는 흥분에 겨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조국해방전쟁시기인 1950년 가을 그는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의 길에 오른 인민군대를 따라 자강도까지 가서 얼마간 지내다가 미제공중비행기의 폭격에 의해 사망되었다.

리돈화의 편집활동, 문필활동은 잡지 《개벽》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개벽》은 1920년 6월에 창간되어 1926년 8월까지 모두 72개호를 내고 존재를 마친 굴지의 잡지였다.

리광민

정신적피로회복에 좋은 유희오락

정신로동을 하는 사람들이 윗놀이, 장기 등의 유희오락을 하면 로동과정에 쌓인 피로를 효과적으로 풀수 있다.

정신로동을 하는 사람들이 윗놀이, 장기를 하면 정신적 및 육체적 저항력이 높아지는것은 물론 이때 발현되는 웃음으로 하여 몸의 여러 기관들의 생리적기능이 좋아진다.

웃음은 배와 가슴, 얼굴을 비롯한 여러 부위의 근육운동으로도 되기때문에 근육계통,

호흡기계통, 중추신경계통 등에도 좋다. 웃을 때에는 얼굴부터 시작하여 아래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근육이 동원되므로 심장활동과 혈액순환이 개선된다.

유희오락은 정신로동을 하는 사람들속에서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높은 로동능률을 낼수 있을뿐만아니라 생활을 더욱 정서적으로, 낙천적으로 할수 있게 한다.

본사기자

새롭게 규정된 체육인건강식품순위

최근 세계영양학회에서 체육인건강증진을 위한 식료품의 순위를 새롭게 규정하였다. 그것을 부류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고기류-계사니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 과일류-귤, 사과, 살구, 감
- 남새류-고구마, 양배추, 가지, 사랑무우, 냉이, 통배추
- 간식류-호두, 콩, 잣
- 기름류-올리브기름, 옥살기름

본사기자